

ICT | 통신업계 사업조직 재편

“신사업 중심으로 바꿨다”... ‘탈통신’ 가속도

SKT, 'AI 빅테크 기업' 도약 발판
"AI, 모든 사업의 기반 플랫폼 역할"
LGU+, 신사업 주력...전문성 강화



이동통신 3사가 탈통신과 신사업 추진에 방점을 둔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겸 SK하이닉스 부회장,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 사장(왼쪽부터).

사진제공 |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통신기업들이 '탈통신' 행보에 속도를 더한다. 최근 연이어 2021년도 조직개편을 발표했는데, 기존 사업의 수익성 강화와 함께 '신사업 추진'에 방점을 뒀다. SK텔레콤은 3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먼저 핵심 기술을 담당하는 조직들을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재편해 'AI 빅테크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AI서비스단의 명칭은 AI&CO(Company)로 바꾸고, SK의 정보통신기술(ICT) 패밀리 회사들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연구개발조직 T3K는 대화형 AI '한

국어 GPT-3', AI 가속기, 데이터 분석 플랫폼, MEC(모바일에지컴퓨팅) 클라우드 개발에 집중하는 4대 프로젝트 컴퍼니로 개편됐다.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사피온'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는 역할도 맡는다.

가장 큰 매출을 내는 MNO(이동통신)

사업부는 9개 핵심 사업과 제품에 주력하는 '마케팅 컴퍼니'로 바뀐다. 모바일, 구독형상품, 혼합현실(MR),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메시징, 인증, 스마트팩토리, 광고·데이터로 모두 조직명 CO가 붙는다. 글로벌 기업을 발굴하는 코퍼레이트 센터 산하에는 기업공개(IPO) 추진 담당을 신설했다. 이번에 SK하이닉스 부회장까지 겸하게 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는 "핵심 사업과 상품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으며, AI가 모든 사업의 기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지난달 말 조직을 개편했다. 기존 사업은 수익성 중심으로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사업 영역에선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기 위한 변화를 줬다. 먼저 스마트 헬스, 보안,

교육, 광고, 콘텐츠, 데이터 사업 등 산재된 사업 조직을 모아 '신규사업추진부문'을 신설했다. 기존 사업에서 별도 독립, 각 신사업 분야가 전문성을 강화해 새 성장 기회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견실한 사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란 게 LG유플러스 측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또 품질조직, 홈 개통·AS 관련 조직, 고객센터 등을 통합한 '고객서비스·품질혁신센터'를 신설해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편제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이 두 조직은 황현식 신임 CEO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다.

업계에 따르면 KT도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다. 구현모 대표가 '디지털플랫폼 기업'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만큼 그에 따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우리는행-세븐일레븐, 상생금융·신사업 MOU

우리는행과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상생금융 및 신사업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는행은 세븐일레븐의 기존 경영주에게 낮은 금리로 제공했던 상생대출을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경영주로 대상을 확대한다. 또 양사는 우리는행의 기업금융 노하우와 세븐일레븐의 광범위한 유통데이터를 결합한 맞춤형 공급망 금융 상품개발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동마케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권광석 우리는행장은 "금융과 유통의 디지털 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컨디션' 유명 유튜버와 라이브 커머스 진행



HK inno.N(구 CJ헬스케어)의 숙취해소 브랜드 '컨디션'이 인기 유튜버들과 랜선 연말 홈파티 콘셉트의 라이브 커머스(사진)를 진행한다. 라이브 커머스는 생방송 중 소비자와 실시간 채팅을 통해 상품

정보를 나누며 온라인 쇼핑의 단점을 보완하는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쇼핑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컨디션' 라이브 커머스는 네이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방송된다. 7일 오후 9시부터는 맥방과 시트콤, 실험카메라 등의 콘텐츠로 109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핫도그TV'와 최세영 쇼호스트가 '확 개는 콜라보 맥방 라이브!'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16일 오후 9시부터는 1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쇼호스트 리코와 함께 '야외에서 즐기는 컨디션 좋은 맥방'이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바이오일레븐 '드시모네 토박배송' 최대 40% 할인

바이오일레븐은 '토박배송' 할인 혜택을 업그레이드하고 경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프로바이오틱스 '드시모네' 월 구독 배송 서비스인 토박배송을 개편하고 이용 고객에게 즉시 10% 할인과 회차에 따라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토박배송을 이용 중이거나 12월 31일까지 토박배송을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토박배송 고객 중 15명을 추첨해 에르메스의 가든파티 36백, H워치, 실크인 컴팩트 지갑 등의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토박배송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12월 한 달 간 에르메스 경품이 자동으로 응모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2021년 1월 29일이다.

정용운 기자



경제현장.jpg

"펜디 팝업스토어로 오세요"



롯데백화점이 22일까지 본점 1층에서 '2020 펜디 로마 홀리데이 컬렉션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런웨이 쇼장을 모티브로 볼륨감 있는 쇼케이스 톨과 고급 카펫으로 꾸몄다. 펜디 백백, 로마 홀리데이 컬렉션 룩을 선보인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롯데백화점

CJ·롯데 등 12개 운송사 수입농산물 운송담합 적발

12년간 입찰가 공유·물량 균등 배분
과징금 54억원 부과 및 검찰 고발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운송회사 12곳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입 농산물 운송 용역 입찰을 12년간 담합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한 60건(계약금액 약 550억 원)의 운송 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입찰가를 합 및 낙찰 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담합한 운송사 12곳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54억 4900만 원을 부과하고, 9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2곳의 운송회사는 CJ대한통운, 한진, 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인터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케이씨티시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1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시행한 수입 농산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경쟁으로 인해 낙찰률이 낮게 형성(71.4%)되자 총분할 수익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2006년 3월 시행된 입찰부터 낙찰 예정자 순위를 정하고 입찰가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낙찰가를 높이기 위한 담합을 시작했다.

공정위는 12개사 중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동원로엑스, DTC, 국보, 인터지스, 세방, 동방, KCTC 9개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물량 배분 담합 및 입찰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조처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이용하는 용역 입찰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을 적발,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현대백, H포인트 모바일 앱 전면 개편

현대백화점그룹이 6일 통합 멤버십 서비스 H포인트의 모바일 앱을 전면 개편했다. 고객 관점에서 알기 쉽게 메뉴를 재분류했고 신용카드, 현금, 백화점 상품권으로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는 선불충전 기능을

추가했다. 걷는 만큼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고, 포인트 기부 기능도 생겼다. 개편 기념으로 24일까지 '오픈 축하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가니발 4세대 9인승 시그니처, LG 트롬 스타일러 등 푸 집한 경품을 준다.

정정욱 기자

건강

“명지춘해재활병원, 환자 안전·의료서비스 국제수준 인증”

보건복지부 우수 재활의료기관 인증
장성구 원장 “양질의 의료서비스 최선”

1기 재활의료기관인 명지춘해재활병원(사진)이 의료기관평가 인증원을 통해 우수한 결과로 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4년까지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 서비스의 질

과 환자 안전 수준을 면밀히 평가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이 국제 수준으로 평가된 곳에 한해 인증을 수여한다.

인증제도는 순위를 정하는 상대평가와 달리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절대평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공표된 인증조사 기준의 일정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4년간 유효한 인

증마크를 부여한다.

명지춘해재활병원은 환자 안전 보장 활동은 물론 진료 전달 체계와 평가, 환자진료, 의약품관리, 환자권리준중 및 보호, 감염관리, 경영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시설 및 환경관리, 의료정보/의무기록관리의 평가 항목을 충족해 인증을 받았다.

장성구 명지춘해재활병원장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보건복지부 의료



기관 인증은 언제나 양질의 최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앞으로도 환자들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LG전자, 기부·봉사 등 연말 산타 프로그램 운영

LG전자는 임직원이 비대면 봉사와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문화가정 아동과 시각 장애인에 대한 동화책 음성 녹음, 청각 장애인에 대한 영화자막 제작, 현혈증과 마스크 기부(사진)를 통한 아동의 치료비 지원, 서울 쪽방촌 식료품 박스 기부 등이다.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이겨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